



##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

성 미 혜<sup>1)</sup> · 주 경 숙<sup>2)</sup>

1)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 Abstract =

###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Father's Role Performance among Husbands of Primiparous

Sung, Mi-Hae<sup>1)</sup> · Joo, Kyung Sook<sup>2)</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2) Doctoral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Purpose:** The father's role performance in this study was identified as the correlation between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with parenting role by husbands of primiparous. **Method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t a professional obstetric and gynecologic hospital in Seoul. For use in this study, the tool by Lederman et al. was modified to incorporate father's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with role performance. Percentages, mean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the SPSS WIN 11.0m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self-confidence in father's role performance was 35.19 and satisfaction in father's role performance was 45.13. General characteristic significantly related to father's role performance were marriage satisfaction and type of delivery. Also marriage satisfaction and religion were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role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self-confidence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father's role performance. **Conclusions:**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father's role perform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confidence. So,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father's role performance may lead to improvement in father's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with role performa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am causality.

**Key words :** Role performance, Self-confidence, Satisfaction

**주요어 :** 역할수행, 자신감, 만족도

교신저자 : 성미혜(E-mail: nurismh@inje.ac.kr)

투고일: 2007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2007년 7월 1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ung, Mi-Ha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ismh@inje.ac.kr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출산과정에 이어 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은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낯설고, 새로운 과정으로, 남성들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과 자아상의 요구로 사회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다(Novak, 1990).

남성은 임신기라는 생물학적 적응시기를 갖지 못한 상태로 부모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쉽게 내면화하지 못한다. 이에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서 곧 바로 아버지 역할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게 되는 경우가 있다(Suh, 1999). 현재 남성들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와 아버지의 역할수행 및 아기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지의 부족으로, 새로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신생아의 접촉은 부모기 이행에 있어 중요하지만 처음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산후 신생아 및 산모와의 관계형성에서는 만지거나 돌보기 행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Henderson & Brouse, 1991; Lim & Yoo, 2002). 역할전환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모는 물론 그 배우자가 자신의 역할에 잘 적응하여 자신과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Oh, Sim, & Kim, 2002). 따라서, 간호사는 산전간호 시 부성역할 획득에 필요한 아버지의 책임, 가족의 재조직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가정에서의 양육도 어머니가 주로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아버지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성구별적 부모역할 수행에서 부부공동의 관심으로 자녀 양육의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부성과 모성의 구별이 모호해진 양성적 부모역할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어졌던 많은 역할을 아버지가 공유하거나 혹은 분담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Lee, 2004; Choi, 1997).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Cho, 1998). 또한, 아버지 역할은 지위부여, 생계유지, 보호, 보살핌, 인격형성

등 다섯 가지가 있으며, 아버지 역할의 근간이 되는 신생아 출생 시 아버지가 보여주는 신생아에의 열정은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신생아돌보기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지 않으면 후에 아버지가 소외될 위험이 있다(Kim, 1998). 한편,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의 아버지 역할수행이 과거보다 증가는 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Jang, 1994). Lee (1992)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은 주로 어머니가 돌보는 견해(52%)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정도로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44.6%)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대상자의 2%만이 태아기와 영아기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행동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증가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인식 및 수행정도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은 문화적 영향,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Choi, 1997), 아버지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버지의 배경적 요인, 가정적 요인, 심리적 특성 요인 범주가 있다. 즉, 아버지의 배경적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종류, 종교, 월평균 수입, 출생순위 등이 있으며,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족형태, 가족구성, 자녀수,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이 있고, 심리적 특성은 결혼만족도나 부부간의 일치도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역할 인식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Hur, 1993; Kang, 2000; Volling & Belsky, 199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임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분만 시 아버지의 출산참여가 허용되고 있다(Kim, 2002).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아버지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되어 역할수행을 잘 할 수 있다(Oh et al., 2002). Yang(2002)은 신생아의 울음이나 보채기 등과 같은 다루기 힘든 행동은 양육능력 획득과정에서 산모나 그 배우자의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양육능력 수행에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산모나 그 배우자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강화될수록 역할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아버지 역할획득에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역할전환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는 부성애착과 역할자신감(Hwang, 2003), 역할지각과 양육참여행동(Hur, 1993)에 대한 연구뿐으로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적극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간호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파악한다.
-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용어 정의

#### ●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역할자신감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한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을 제공하는 양육적인 역할수행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Golas & Parks, 1986)으로, 본 연구에서는 Lederman, Weigarten & Lederman(1981)의 산육기 자가평가지 중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척도를 Lee(1992)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는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아버지의 부성기 및 영아 양육행동에 대한 즐거움 정도를 말하며(Oh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Lederman et al.(1981)의 산육기 자가평가지 중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감 척도를 Lee(1992)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는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자료수집기간동안 정상 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한 부인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초산모 배우자 전수인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임신 및 분만과정에 산모나 신생아에게 문제가 없었으며, 2) 재태기간이 38주 이상 42주 미만의 만삭아이며, 3) 분만 후 모자동실에서 신생아를 적어도 1회 이상 돌본 경험이 있으며,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초산모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분만 후 1-5일 이내에 모자동실에 있는 초산모의 남편으로 신생아를 적어도 1회 이상 돌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이었다.

### 연구 도구

#### ●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는 Lederman, et al.(1981)의 산육기 자가평가지(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Measures of maternal adaptation) 중에서 제5번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Lee(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당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아버지 대상으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았다. 도구의 내용은 아버지의 부모역할 및 영아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영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걱정이나 의심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Likert 형 4점 척도로 각 문항마다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최저 14점에서 최고 56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99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였다.

●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아버지 역할수행 만족도 측정도구는 Lederman, et al.(1981)이 개발한 산욕기 자가평가지(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Measures of maternal adaptation) 중에서 제6번 만족감 측정도구를 Lee(199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기 및 영아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감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Likert 형 4점 척도로 각 문항마다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최저 13점에서 최고 52점),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99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4$ 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SPSS WIN 11.0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개별적인 외적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대상자 선정 시 서울시 소재 1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평균 32.8세로 30-34세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67.8%가 대졸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28.9%, 불교 13.3% 순이었다. 직업형태는 사무직이 37.8%, 기술직이 36.7%, 생산직이 16.1% 순이었으며, 가족구조는 91.1%가 핵가족으로 대부분이었다. 월수입은 평균 294.2만원으로 201-300만원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만족도는 보통이거나 불만족한 경우는 전혀 없이 83.3%가 매우 만족하였다. 81.7%의 대상자가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산전교육은 85.0%가 참석하지 않았다. 원하는 자녀수는 평균 2.07명으로 2명이 53.9%로 과반수 정도였으며 기대하는 태아성별은 56.1%가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 임신에 대해서는 93.9%가 임신을 원하였으며, 현재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 48.9%, 딸이 51.1%였다. 분만형태는 69.4%가 자연분만을 하였다.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56점으로 평균 35.19점이었으며,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52점으로 평균 45.13점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만족도( $p<.05$ ), 분만형태(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결혼만족도가 매우 만족한 경우 만족한 경우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으며, 분만형태가 자연분만인 경우 제왕절개 분만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Table 2>.

<Table 1>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to paternal role performance (n=180)

	Mean(SD)	Item mean
Self-confidence to paternal role performance	35.19(4.78)	2.51
Ability to care for the baby & decision-making	21.33(2.52)	2.66
Self-confidence to baby's need or behaviors	13.85(2.93)	2.30
Satisfaction to paternal role performance	45.13(4.68)	3.47
Satisfaction to parenthood	14.42(1.60)	3.60
Satisfaction to upbringing	30.71(3.73)	3.41

<Table 2>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paternal role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Self-confidence		Satisfaction	
		Mean(SD)	t or F	Mean(SD)	t or F
Age(yrs)	<29	35.34(5.05)		45.79(4.75)	
	30-34	35.42(4.52)	0.43	45.20(4.69)	0.95
	≥35	34.65(5.04)		44.44(4.6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37.20(2.52)		47.90(3.54)	
	University	34.86(4.91)	1.37	45.15(4.47)	2.18
	Above graduate school	33.62(4.72)		44.52(5.27)	
Religion	Christian	36.07(4.03)		45.90(4.36)	3.40*
	Catholic	34.25(4.12)	1.45	42.00(5.78)	Catholic<
	Buddist	36.00(4.61)		46.16(4.60)	Christian,
	None	34.62(5.27)		44.97(4.49)	Buddist, None
Type of job	Office worker	34.55(5.42)		44.38(4.73)	
	Sales worker	36.27(4.30)	1.30	46.10(4.73)	1.27
	White-collar	35.62(4.33)		45.60(4.66)	
	Professional	34.23(4.26)		44.70(4.35)	
Family type	Nuclear	35.19(4.77)	0.01	45.10(4.73)	-0.32
	A large family	35.18(4.08)		45.50(4.28)	
Monthly income (10,000won)	≤200	35.47(4.96)		45.75(4.58)	
	201-300	34.65(4.60)	0.79	44.40(4.80)	1.55
	≥301	35.69(4.79)		45.41(4.58)	
Satisfaction on marriage	High	35.52(4.97)	2.10*	45.62(4.43)	3.15**
	Middle	33.53(3.26)		42.73(5.23)	
Antenatal care	Yes	35.16(4.96)	-0.32	45.06(4.69)	-0.82
	No	35.46(3.91)		45.81(4.29)	
Prenatal education	Yes	34.77(4.37)	-0.49	44.51(4.44)	-0.74
	No	35.26(4.85)		45.24(4.73)	
Number of child (person)	1	35.27(4.27)		45.24(4.32)	
	2	34.95(4.67)	0.84	45.12(4.65)	0.77
	3	36.06(5.08)			
Fetal sex	Female	35.44(5.65)		44.88(5.12)	
	Male	34.76(3.93)	0.19	45.29(4.77)	0.09
	none	35.22(4.65)		45.19(4.49)	
Hope to pregnancy	Wanted	35.18(4.82)	-0.12	45.15(4.65)	0.23
	Not wanted	35.36(4.31)		44.81(5.34)	
Sex of child	Female	35.36(4.95)	0.50	44.90(4.81)	-0.69
	Male	35.01(4.61)		45.38(4.56)	
Type of delivery	Normal delivery	35.76(4.54)	2.42*	45.54(4.24)	1.75
	C/section	33.90(5.00)		44.21(5.48)	

\* p<.05 \*\* p<.0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p<.05), 결혼만족도(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없는 대상자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결혼만족도는 매우 만족한 경우 만족한 경우보다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높은 순 상관관계( $r=.356, p<.01$ )를 보여,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Table 3>.

<Table 3> Relation between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paternal role performance

	Satisfaction
Self-confidence	.356**
Satisfaction	1.000

\*\* p<.01

## 논 의

본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최대 56점에 대해 평균 35.19점, 문항평균이 2.51점으로 보통 수준의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Hwang(2003)의 초산모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분담 참여유무에 따른 아버지역할 자신감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5점 만점에 참여군이 평균 4.09점, 비참여군이 평균 3.58점으로 나온 결과와 Lim과 Yoo(2002)의 아버지의 산육기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03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영역별로 보면, 영아의 양육능력 및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 21.33점, 문항평균이 2.66이었으며, 영아의 욕구파악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 13.85점, 문항평균이 2.30점으로 영아의 욕구파악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영아의 양육능력 및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Jung과 Han(1999)의 연구에서 영아의 양육능력 및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자질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높았지만 영아의 욕구파악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신감은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Lee(2004)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78.6%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돌보거나 놀이주는 등의 아버지 역할수행을 보통 이상으로 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Parke(1986)는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버지들에게 신생아의 지각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 놀이기술, 자녀양육의 기술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한 후 3개월 후의 아버지 행동을 조사한 결과에서, 시청각 자료를 제공받은 아버지들의 양육행동은 더 잦은 빈도로 우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아의 욕구파악과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아버지에 대한 교육은 처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자신감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할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현장에서는 어머니들의 욕구와 아기와 관계에 초점을 두었을 뿐 아버지와 아기와 관계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간호중재는 소홀히 여겨져 왔다(Hwang, 2003). 이에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간호중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임신과 출산 시 남성들이 경험하는 부성애와 부성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출산기간에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Jung, 2000).

한편,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최대점수 52점에 대해 평균 45.13점, 문항평균이 3.47점으로,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Jung과 Han(1999)의 연구에서 최대점수 4점에 대해 평균 3.20점으로 나온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1998)은 아버지의 영아에 대한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영아의 요구에 반응적이고 민감하며 영아의 접근, 상호작용 및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애착행동에 어머니와 동등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과의 놀이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능숙하게 영아를 안고 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영역별로 보면, 아버지가 된 사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0점으로 문항평균이 3.60점이었으며, 영아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1점으로 문항평균이 3.41점으로 영아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Jung과 Han(1999)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된 사실과 영아 양육행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상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자신이 아버지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만, 아기양육 시 아버지의 역할수행 및 아기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버지로서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되어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초산모와 배우자간의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만족도, 분만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다는 연구결과들(Belsky & Vondra, 1993; Jang, 1994; Lee & Han, 1998; Volling & Belsky, 1991)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아기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아버지는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하고 자녀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반면 불행한 결혼을 한 아버지는 아내 뿐 아니라 자식과도 거리를 두게 되어 자녀와 정서적으로 풍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어 자녀양육 참여에 있어 부부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다(Kang, 2000). 또한,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분만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Hwang(2003)의 연구에서 분만형태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수술분만이라는 요인이 분만 후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Palkovitz(1987), Hwang(2003)과 Lee(2004) 등의 연구에서 부부단결, 산전교육, 양육과정에서의 참여 등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Kang(2000)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긍정적인 부성역할을 나타내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30%를 설명한다고 하였으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Kim(1998)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Hwang(2003), Joo(2005)의 연구에서의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또한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Jung과 Han(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역할수행과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역할수행을 잘하면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다는 주장과도 일치한 것이다. 따라서,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면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성역할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이들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줄 경우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산모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이들의 분만 후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조사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진행 상 입원기간 동안에 모자동실에서 신생아를 돌본 경험이 있는 초산모 남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남편에 대한 개별적인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한 추후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 배우자 180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도구는 Lederman 등(1981)의 산욕기 자가 평가지를 간호학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아버지를 대상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수정, 보완한 4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최대점수 56점에 대해 평균 35.19점이었다.
-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최대점수 52점에 대해 평균 45.13점이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결혼만족도, 분만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는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여,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또한 대상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결혼만족도, 분만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초산모 배우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경우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산욕초기부터 아버지 역할수행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 References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Cho, S. H. (1998). *Relation between paternal satisfaction, stress and paternal rol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 Sook Myung University.
- Choi, H. S. (1997). Understanding to paternal role. *J Graduate School Stud Assoc*, 25(1), 54-62.
- Golas, G. A., & Parks, P. (1986). Effect of early postpartum teaching on primiparas' knowledge of behavior and degree of confidence. *Res Nurs Health*, 9, 451-459.
- Henderson, A. D., & Brouse, A. J. (1991). The experiences of new fathers during first 3 weeks of life. *J Adv Nurs*, 16(3), 293-299.
- Hur, S. J. (1993). An analysis on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father's role perceptions and involvement behaviors. *J Educ Res*, 31(5), 131-152.
- Hwang, E. J. (2003).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and role confidence to newborn between participation group and non-participation group in family delivery room*. Master's thesis, Koshin University.
- Jang, M. N. (1994). *Effect on paternal role to the job role and satisfaction to marriage of mal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oo, K. S. (2005). *Study on the childhood experiences, paternal-infant attachment and role of a father of primiparous spouses*. Inje University.
- Jung, E. S., & Han, M. E. (1999). A study on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among o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5(1), 79-88.
- Jung, K. S. (2000). *Relationship, the degree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competence*. Master's thesis, Koon San University.
- Kang, R. H. (2000). Career vs child: Differences in the child-rearing practicies of Korean and Japanese father. *J Korean Asso Child Studies*, 21(2), 119-133.
- Kim, J. H. (2002).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to high-risk newborn and normal newbor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Y. H. (1998). *Interaction between first-time fathers and their infa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derman, R. P., Weigarten, C. G., & Lederman, P. (1981). Postpartum self evaluation questionnaire: Measures of maternal adaptation. *Birth Defects Orig Artic Ser*, 22(6), 23-32.
- Lee, I. K. (1992). *Paternal role of preschool aged chil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 Lee, S. H., & Han, E. J. (1998). A study on paternal role-behavior of married men. *J Korean Home Manage Assoc*, 16(2), 23-39.
- Lee, S. H. (2004). *Study on the perceived rewards and costs, and role performance of fathers with Infants*. Doctor dissert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 Lee, Y. E. (1992).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an agreement on the means to achieve nursing goal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of primiparous mothers and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J Korean Acad Nurs*, 22(1), 81-115.
- Lim, J. A., & Yoo, E. K. (2002).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 class upon father's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about postpartal woman and newborn. *Korean J Women Health Nurs*, 8(3), 345-357.
- Novak, J. C. (1990). Facilitating nurturant fathering behavior in the NICU. *J Perinat Neonatal Nurs*, 4(2), 68-77.
- Oh, H. E., Sim, G. S., & Kim, J. S. (2002). The effects of prenatal education on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8(2), 268-277.
- Palkovitz, R. (1987). Father's motives for birth attendance. *MCN*, 16(2), 123-129.
- Parke, R. D. (1986). *Paternal role*. Seoul: Jang Ji Co.
- Suh, H. Y. (1999). *Relation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ce of competence*. Docto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Volling, B.,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 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 Marital Fam*, 53, 461-474.
- Yang, M. S. (2002). *A study on the self-confidence and nursing need of maternal role in primipara during postpartum perio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